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309-323  
<https://doi.org/10.29212/mh.2024..131.30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서평】 6·25전쟁 기간 실시된 상륙작전을 집대성한 결정판

- 박종상 지음, 「6·25전쟁 시 상륙작전」(군사편찬연구소, 2023) -

임명수\*

이 글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종상)에서 2023년 10월에 출간한 「6·25전쟁 시 상륙작전」에 대한 서평이다. 이 책은 71년 전 적대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정전협정 체결 전까지 6·25전쟁 기간에 실시된 상륙작전에 대해 저자가 국내외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결정판이다. 이 책에는 지금까지 각 군에서 단편적으로 연구돼 온 상륙작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펴냈다는 점에서 전쟁사적인 연구성과가 크다고 평가된다.

### 1. 끝나지 않은 6·25전쟁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중동전쟁도 1년을 향해 가고 있

\* 이화여자대학교 안보학 특임교수

지만,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논의는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은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도 전쟁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오늘날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폐기하고 ‘전쟁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올해 연초부터 대남 위협 발언과 함께 각종 미사일 발사 등을 지속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을 통해 전쟁 당사자들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전쟁이 완전 종료된 것이 아니라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언제든지 일방이 합의를 파기하고 전쟁상태로 돌입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6·25전쟁은 끝난 전쟁이나,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전쟁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2023년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6·25전쟁과 한미동맹을 재조명하는 해이기도 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6·25전쟁이 잊혀져 가고 있음에도 그 당시 전개됐던 상륙작전에 대해 국내외 자료들을 새로운 눈으로 연구·분석하여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 평가된다.

일반인들에게 6·25전쟁은 국군과 유엔군이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을 상대로 전투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그중에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해군작전의 하나로 인식하는 수준이다. 이런 국민의 기억을 방증하듯 대부분의 국내외 6·25전쟁 관련 출판물에도 지상 전투 내용이 대부분이고, 상륙

작전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6·25전쟁에서 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의 상징적 의미에 주목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천착한 연구물이 없었다.

심지어 상륙작전과 가장 밀접한 군이라 할 수 있는 해군이나 해병대에서조차도 매년 실시하는 현대적 상륙작전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6·25전쟁 기간 중 실시된 상륙작전에 대한 연구를 통한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발전된 상륙작전을 시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결론적으로, 6·25전쟁의 연구와 현행작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군 관계자들이 전쟁사(戰爭史)를 단지 특정 시기에 발생해서 진행된 오래된 전쟁의 기록이나 역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은 전쟁사를 연구하고 기록물을 생산하는 부서와 현행 및 장차 작전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부서 간 상호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은 오늘날 육·해·공군, 해병대 장교들의 보수교육기관에서 6·25전쟁을 다루고 있음에도 대부분 제한된 복기 수준으로 진행될 뿐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대전과 미래전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라 하겠다.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이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물 중에서 6·25전쟁 기간 실시한 상륙작전만을 별도로 연구하여 책으로 출간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박종상 선임연구원이 잊혀지고 주목하지 않는 분야인 상륙작전에 대해 국내외 자료를 찾고 종합·분석하여 「6·25전쟁 시 상륙작전」으로 집대성하여 출간한 것은 학술적으로나 전쟁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 2. 전사를 통해 본 상륙작전

상륙작전의 개념은 저자가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상륙작전부대가 함정 및 주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상륙군을 바다로부터 육상으로 투사하는 작전”을 말한다. 따라서 상륙작전은 상륙작전의 무대인 바다에서 상륙군을 육상으로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전이다.

이러한 상륙작전의 목적에 대해 저자는 합참에서 발간한 「합동상륙작전」 교범 내용을 다음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적의 작전적 또는 전술적 중심을 파괴하기 위하여 취약점과 결정적 지점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한 번의 신속한 타격으로 전역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전승의 호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상륙작전은 해·공군의 전진기지 확보 또는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의 설치나 차후 지상작전을 수행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하기 위해 실시될 수 있다. 따라서 상륙작전부대는 상륙작전을 통해 적의 다정면 대응 및 전투력의 분산을 강요하여 아군의 통제지역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상륙작전은 다른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의 지역 또는 시설의 사용을 거부한다. 또한, 적의 측·후방을 타격하여 적 부대를 고착하거나 전방의 고착된 전선을 타개하고 적이 주의를 전환시킴으로써 지상군의 공격 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위 3가지 목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다. 즉,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후방지원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적의 전투 의지를 박탈하고, 동시에 적의 공격 탄력성을 약화하여

작전 지속능력을 제거하는 데 있다. 이를 기회로 아군은 반격작전을 강행하여 전세를 역전시켜 ‘전략적 제2전선’ 형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상륙작전은 적의 전투력의 두 축인 정신적·물질적 전투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아군에게 유리한 반격의 전환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전에 있어서 히든카드로 활용돼 온 점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전쟁사를 통해 볼 때 전쟁의 형태는 무기체계의 발달과 함께 변화해왔다. 그리스, 로마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대 전쟁은 적대적 두 세력이 창과 칼, 방패 등으로 무장한 보병이 밀집대형 즉, 방진(方陣)을 형성하여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전이 주를 이루었다. 해전(海戰)은 화공(火攻)이나 적 함선에 올라 전투를 벌이는 일종의 ‘해전(海戰)의 육전화(陸戰化)’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B.C. 480년 페르시아 원정대와 그리스 연합함대 간의 ‘살라미스해전’과 B.C. 264년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제1차 포에니 전쟁’을 들 수 있다. 중세의 전쟁은 기병을 중심으로 지상전이 주를 이루었고, 중세 말기 총과 포가 등장하면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 근대의 전쟁은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포위·섬멸전을 수행하는 근대적 전투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의 동·서부전선에서 진지전(陣地戰) 형태의 방어전 성격이 강했고, 급기야 프랑스는 ‘방어제일주의’에 입각해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대(서부전선)에 350km에 이르는 구간에 요새와 포대, 병커 등으로 거대한 장벽인 ‘마지노선(Maginot Line)’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군이 마지노선을 피해 프랑스 북부 아르덴(Ardennes) 지역을 기습하면서 프랑스는 파리를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전략적 제2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갈리폴리 상륙작전(Gallipoli campaign)

등이 있었으나 전세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현대전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실시된 노르망디(Normandy) 상륙작전이 대표적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규모 면에서 해군력, 항공전력, 상륙전력, 상륙작전과 상륙 이후 필요한 군수물자 등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규모의 작전으로 꼽힌다. 이 같은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구비할 요소는 첫째, 상륙군과 전쟁물자를 이송할 해상 수송수단이다. 둘째, 적 해안의 방어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항공전력이다. 이때 항공전력은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 해병대의 항공전력도 포함한다. 셋째, 적 해안의 위협물을 제거하기 위한 해상전투력이다. 이는 D-DAY를 전후로 적 상륙해안에 위치한 적 포대 등 지상 위협물을 제거하기 위한 함포사격과 적 해안의 기뢰를 제거하는 기뢰함 등의 전력이 필요하다. 넷째, 적 해안에 투입할 상륙전력(병력, 장비)이 필요하다. 이때 상륙군은 지상군을 단순히 이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투함에서 내려와 상륙단정을 타고 상륙해안에 접안 후 돌격하는 단계까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섯째, 상륙군이 상륙 이후 내륙의 교통망과 연결하는 제반 수단들을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요소들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전략적 상륙작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복잡하고 지·해·공 전력이 혼합된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선진군대만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르망디상륙작전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상륙작전으로 기록되는 이유도 바로 대규모 병력과 전투력, 군수물자 등을 준비하고 상륙시킬 능력을 갖춘 미군이 주도하여 실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된다.

### 3. 책의 구성 및 내용

이 책의 구성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6·25전쟁 시 수행된 상륙작전들은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기 위해 계획되고 시행된 작전이었음에도 인천상륙작전 외에 연구가 부족했던 다른 상륙작전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 외의 상륙작전에 대한 심층연구가 부족했던 이유에 대해 저자는 “상륙작전은 지·해·공군 단독작전과 달리 미국과 한국, 유엔군과 국군,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여러 국가와 군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잡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단편적인 자료만으로 연구가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6·25전쟁 중 실시됐던 모든 상륙작전에 대해 전투사적 측면에서 추진 배경 및 목적, 계획수립과정,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부대편성 및 탑재 등 준비, 상륙작전 전개과정, 상륙작전 제한사항, 상륙작전의 결과 및 차후 작전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여 망라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저자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투영된 연구물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의 상륙작전 연구가 인천상륙작전 위주의 군사교리적인 연구가 대부분으로, 전쟁사적인 연구는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분야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 저자가 지적하는 각 상륙작전에 대한 미흡한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항상륙작전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에 간략하게 기술된 수준이고, 최근 포항지역

학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서가 출간된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통영상륙작전은 이 작전에 참가한 해군, 해병대, 공군 등에서 자군 위주로 기록된 수준이고 합동작전 차원의 종합적인 연구는 미흡하였다고 평가했다. 셋째, 장사상륙작전은 1차 사료가 거의 없는 가운데 참전자들의 증언과 회고록을 바탕으로 국방부와 육군, 해군에서 일부 진행돼 객관성이 다소 결여되었다고 평가했다. 넷째, 인천상륙작전은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상륙작전계획 부분의 연구가 부족하였고 6·25전쟁의 차후 작전에 미친 영향에 중점을 두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섯째, 원산·이원상륙작전은 그동안 미 해병 제1사단에 의해 실시된 원산상륙작전과 소해작전 위주로 제한적인 연구가 있었을 뿐 이원상륙작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원산상륙작전이 맥아더 사령관의 실패한 작전으로 인식된 점을 원인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2인천상륙작전은 해군에서 해군 단독작전 위주로 기술돼 있어 미 제8군사령관의 선더볼트 작전과 미 극동해군사령관의 지시와 협조, 그리고 미 제8군의 서울 재탈환에 기여한 부분이 누락돼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위와 같은 6·25전쟁 시 실시된 각 상륙작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연구 및 분석을 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국방부와 육·해·공군, 해병대 등 각 군 기록물과 문헌, 그리고 미국 국립문서관리기록청과 맥아더기념관 보관자료, 상륙작전 참전자들의 회고록과 증언록, 기타 상륙전사와 관련된 연구서와 연구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6·25전쟁 시 실시된 상륙작전 전반에 대한 완결성을 높였다.

제2장 ‘포항상륙작전’편에서 저자는 포항상륙작전의 배경 및 계획, 과정, 결과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6·25전쟁이 발발하

자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1950년 6월 29일 한강방어선을 시찰하면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상륙작전을 구상했고, 일본으로 복귀하여 참모장 알몬드 소장에게 상륙작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여 그 후 합동전략기획작전단에서 ‘블루하츠(Operation Bluehearts)’라는 작전명으로 인천상륙작전 계획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빠른 남진으로 7월 10일 이 계획은 무효화 되고, 부산지역 방어를 위해 부산에서 가까운 포항을 상륙지역으로 공식화하여 ‘레드하츠(Operation Redhearts)’로 작전명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상륙부대는 7월 10일부터 미 제1기병사단, 제5·제8기병연대, 3개 포병대대 및 소규모 배속부대로 편성되어 이틀에 걸쳐 승선을 완료하고, 7월 18일과 19일 양 일간에 포항에 상륙하여 중부전선으로 이동해 미 제24사단과 교대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포항상륙작전은 적군의 무저항하에 실시된 행정상륙이었지만 아군의 전선을 보강해 포항과 중부전선에서 북한군의 남하 속도를 저지하였으며, 단기간에 상륙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는 미 해군·해병대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3장 ‘통영상륙작전’편에서는 해병대 김성은 부대가 1950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북한군 제7사단 예하부대가 점령하고 있는 통영반도에 상륙하여 교전 끝에 통영시가지를 탈환한 작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작전에서 상륙군인 김성은 부대는 해군 YMS-512정과 FS 평택호에 탑승하여 통영 시내에 진입하였으며, 통영 근해를 경비하던 해군 PC-703함, AKL-901정, YMS-504·512정, JMS-302·307정 및 FS 평택호 등을 통합 지휘하여 이들의 엄호하에 통영반도에 상륙하여 작전을 전개하였다. 통영상륙작전은 통영을 점령하고 거제도도 우회하여 부산을 위협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한국 해군과 해병대로 편성된 병력으로 저지함으로써 부

산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상륙작전이다. 이 상륙작전에는 해군 함정의 함포사격 외에도 한국 공군 F-51D 전투기의 대지공격, T-6 항공기의 기총사격을 통해 아군의 상륙작전을 도왔다. 이는 6·25전쟁 시 국군 최초의 해·공군·해병대의 합동작전으로 기록될 만하다.

제4장 ‘장사상륙작전’편에서는 포항으로 남진을 시도하는 북한군 제2군단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가 1950년 9월 15일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동 해안에서 실시한 상륙작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작전은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의 요청으로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의 명령에 의해 대한해운공사 소속 문산호를 타고 실시됐으나 태풍 케지아의 영향으로 문산호가 해안에 접안하지 못한채 상륙작전이 시작돼 철수할 때까지 전사 139명, 포로 39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장사상륙작전 종료 후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은 이 작전이 문산호의 손실을 초래, 많은 유격대원의 사상자 발생 등은 상륙작전 준비가 불충분했다고 지적 한 바 있다. 또한 저자는 연구를 통해 장사상륙작전의 실패로 인천상륙작전에 투입하려던 일부 함정이 장사동 해안으로 화력지원을 해야 함에 따라 인천상륙작전 초기 해상 화력지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상륙작전은 실행 전까지 철저한 계획과 제 전력 간 협조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장사상륙작전을 통해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는 북한군의 주 보급로인 포항·영천 방면으로 가는 국도를 차단해 북한군의 후방활동을 지연시켰으며, 포항·경주방면으로 진출하려던 북한군 2개 연대와 전차 4대를 영덕 방면으로 유인하여 북한군 전선을 교란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5장 ‘인천상륙작전’편에서는 1950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 제10군단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을 인천에 상륙시켜 서울로 향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한군의 후방 병참선을 차단함으로써 적의 공세를 꺾어 아군의 총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작전이었다. 인천상륙작전 계획 초안은 1950년 7월 23일 완성돼 작전명 ‘크로마이트 작전(Operation Chromite)’으로 명명되었다. 이 작전은 9월 9일 미 합참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8월 26일 상륙작전을 담당할 상륙부대로 미 해병 제1사단과 미 제7사단을 주축으로 미 제10군단을 창설하였다.

이후 9월 5일부터 평양에서부터 인천, 군산 등 서해안 상륙작전 가능지역에 공중폭격을 실시하였으며, 9월 12일부터는 군산에 대해 양동작전을 실시하고, 9월 14일과 15일에는 강원도 삼척 일대에 함포사격을 가해 기만작전을 실시하였다. 한편, 9월 12일부터 인천 월미도를 제압하기 위한 폭격을 시작으로 유엔군 261척의 함정과 상륙군 7만여 명으로 구성된 상륙군은 9월 15일 02:00시에 상륙작전을 개시하여 9월 21일 18:00시에 상륙작전이 종료되고 서울 탈환작전이 개시되었다.

제6장 ‘원산·이원 상륙작전’편에서는 유엔군이 1950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한 상륙작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상륙작전에는 미 제10군단 예하 미 해병 제1사단과 미 제7사단이 상륙군으로 편성돼 진행됐으나 적군이 원산에 기뢰를 다수 부설하여 제거작전이 지연돼 미 해병 제1사단은 10월 26일 원산으로, 미 제7사단은 10월 29일부터 원산 동북방 이원에 각각 상륙하였다. 상륙군은 기뢰제거 작전이 지연됨에 따라 황금같은 2주간의 시간을 해상에서 보내야 했고, 미 제8군단과 제10군단이 동·서로 분리돼 북상함으로써 중공군의 공격에 상호 지원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 제8군에 대한 보급에 차질이 발생해 38도선 이남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원산·이원상륙작전은 10월 10일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이 원산항을 비롯한 원산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적군이 소멸된 가운데 진행된 행정상륙이었음에도 원산항에 설치된 기뢰제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최초 계획된 10월 20일에 상륙하지 못하고 일주일 이상 지연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의 북상속도가 늦어져 차후 작전에 결정적 실패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7장 ‘제2차 인천상륙작전’ 편에서는 1951년 2월 10일 우리 해군 및 해병대가 1951년 1·4후퇴 이후 다시 북한군이 점령했던 인천시에 상륙하여 재탈환한 작전을 소개하고 있다. 인천항 재탈환은 포화상태인 부산항의 군수물자 양륙을 인천으로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격작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선결조건이었다. 따라서 미 제8군은 1·4후퇴 이후 서울 재탈환을 위한 ‘선더볼트작전’을 계획하고 상륙양동작전의 일환으로 인천항 재탈환작전을 계획하였다. 결국, 제1차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전에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인천항을 확보함으로써 유엔군의 재반격 작전 여건을 마련해 서울을 재탈환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4. 기존 연구와 차별성 및 성과

저자는 제8장 결론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사항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것이 저자가 이번 연구에서 거둔 차별성과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첫째, 포항상륙작전의 작전명이 ‘블루하츠’가 아니라 ‘레드하츠’ 작전이라는 점을 밝혔다. 저자는 그동안 인천상륙작전 초기계획의 작전명 ‘블루하츠’가 포항상륙작전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맥아더 기념관 소장자료에서 포항상륙작전에 ‘레드 하츠’로 변경되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저자는 그동안 통영상륙작전은 해군작전으로 기록돼 왔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의 지시로 해병대 김성은 대령이 인근 해군전력을 통합지휘하여 실시한 상륙작전임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다. 셋째, 장사상륙작전은 그동안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기만작전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의 요청으로 다수의 학도병으로 편성된 육군 독립 제1유격대에 의해 실시된 상륙작전이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저자는 미 해군 자료 및 미 국립문서관리기록청 자료에서 이 작전의 실패로 인천상륙작전의 기만작전을 위해 실시된 동해안 일대의 해상지원 감소를 초래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넷째, 그동안 한국 육군 제17연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는 한국 육군 제17연대는 미 제7사단에 배속되었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되기 전까지 부산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

던 것으로 밝혀졌다. 저자는 관련 자료를 통해 국군 제17연대는 인천상륙작전이 종료되고 서울 탈환작전을 개시하고 있던 9월 24일 인천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 탈환작전에만 참가한 것으로 밝혔다. 다섯째, 원산·이원상륙작전은 그동안 원산상륙작전으로 알려져 왔는데, 저자는 미 제10군단의 ‘War Diary’에서 원산·이원상륙작전으로 기록돼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저자는 원산상륙작전은 원산지역에 상륙한 미 해병 제1사단만의 상륙작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원지역에 상륙한 미 제7사단의 상륙작전을 포함해 미 제10군단에서 부여한 ‘원산·이원상륙작전’으로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공감이가 가는 부분이다. 필요하다면 한미간 정밀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섯 번째, 제2차 인천상륙작전은 부산항에 집중된 군수물자를 분산 양륙할 인천항 확보 필요에 따라 실시된 작전이었다. 이 작전은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워커 장군 후임으로 부임한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계획한 기만작전의 일환이었으나 이 작전이 취소된 후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제95기동부대 사령관인 스미스 제독의 지시에 의해 실시된 작전이었다. 이 작전에서 당시 덕적도에 주둔하던 해병대가 초기 상륙작전에 참가하지 못한 이유는 해군에서 사전에 연락하지 않아 부대를 집결시키지 못해 만조 시간을 고려해 함정탐승이 불가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책의 장점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저자의 군 경험과 연구성과를 녹여낸 점이다. 저자는 해병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상륙작전 관련 교육훈련을 통해 상륙작전 개념과 작전용어, 작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이 책을 집필하였다. 따라서 각 상륙작전마다 전개과정이 자연스럽게 쉬운 용어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6·25전쟁 시 실시됐던 여섯 차례 상륙작전에 대해 시기별, 상황(배경)별 작전계획, 부대편성 등 복잡한 준비과정, 상륙부대 편성, 상륙전 기만작전으로 공습 및 함포사격, 상륙 및 작전 결과, 차후 작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둘째, 6·25전쟁 당시 실시됐던 상륙작전 관련 국내외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6·25전쟁 당시 상륙작전 관련 연구나 기록물은 해군본부에서 생산한 출판물들이 다수이다. 하지만 한미 해군 자료와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예비역 인터뷰를 활용하여 단편적인 부분이 많았다. 그에 비해 이 책은 국내외 자료를 활용하고, 육·해·공군, 해병대, 미국 국립문서관리기록청(NARA)과 맥아더기념관(MA)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연구가 미흡했던 상륙작전 계획을 비롯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다수 확인함으로써 상륙작전 전반에 대한 입체적 조망과 사실에 기반한 작전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에서 저자의 전문성과 열정, 노력의 연구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 필자는 제2 6·25전쟁에 대비해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 해군·해병대의 항공전력 추가 확보, 주요 항만 보호대책, 한미 해군·해병대를 비롯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실무부대 간 정기적인 상륙작전 교육훈련 및 토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륙작전은 해군 함정과 해병대만 투입되는 작전이 아니라 항공전력, 상륙군 등 제 전력의 복합적으로 연계된 작전이다. 따라서 이 책은 차후 한반도에서 유사한 안보위기사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국방분야에 종사하는 육·해·공·해병대 장병을 비롯해 군사, 안보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귀한 사료 및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므로 일독을 권한다.